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기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이동 (9월 18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이다.(루카 9,23-26)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주님,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봅시다.

✝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한국 천주교회가 그토록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자 수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고통

1. 멸문지화의 걱정 : 가족, 친척들이 극심하게 말리는데 느끼는 고통
2.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살아야하는 고통
3. 피난생활의 고통 : 모든 것을 버리고 피신, 산 속에서 혹한, 아사의 고통
4. 고문을 통한 고통 : 잡히면 모진 고문이 따른다.
5. 감옥의 고통 : 갈증, 배고픔, 명석자락을 뜯어 먹는다.
6. 순교의 고통 : 순교당할 때 단칼에 베지 않고 여러 차례 고통을 준다.
7. 순교 후 시신이 당할 오욕 : 수장, 서소문 하수구, 모래사장에 방치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